

경남 양산 원동면 지표조사 돌날몸돌 사례

이성주* · 최원섭* · 박영철**

양산군 원동면 花濟里는 낙동강 하류 유역 東岸 2.5km 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난 4월 중순 과거부터 알려져 있던 화계초등학교 뒷편의 가마터에 대한 현상점검과정에서 이곳이 구석기 유물 분포지역임이 확인되었다.

혼펠스계의 돌날몸돌 1점(92.5×53.5×39.5mm)과 돌날 1점(134×53×27mm)이 지표조사 되었으며, 몸돌은 외형이 원추모양이나 윗끝은 타격면을 조성하였고, 깨기는 위에서 下, 그리고 下에서 上방향으로 양극 동시떼기를 하였다.

돌날은 타격면은 매우 축소화시켜 직사각형을 연상시킬 정도로 평행하게 떼었고, 횡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을 연상시키는 균형있는 형태이다.

이 유적의 중요성은 이러한 유형의 석기들이 밀양 고례리유적에서 조사되었던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이며, 실제 이 두 유적은 가지산 도립공원을 가운데 두고 직선지점 25km 지점에 동남에서 서북으로 서로 위치하고 있다.

* 경남발전연구원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